

Japan Weekly Digest

2011. 12. 17. ~ 12. 23.

☐ 금주의 이슈

- 일본정부의 내년도 경제전망 발표
- 중국국채 매입, 일·중 정상회담에서 합의
- 사회보장개혁 기본안 공식 결정

☐ 일본기업전략

- 관·민공동펀드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지원
- 도요타 내년 사상 최대 생산계획, 신흥국시장 공략

☐ 경제산업성 동향

- 화력발전소 증설에 입찰의무화 검토
- 아시아 거점화전략 본격 가동

☐ 보고서 리뷰

- 『동아시아의 지역통합과 지진 이후, 일본경제 시나리오』
경제산업연구소, 12월23일



협회 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◆ 금주의 이슈

□ 일본정부 내년도 경제전망 발표

- 2012년도 일본정부의 경제전망은 실질 GDP성장율이 2.2%로 민간연구기관의 예측치(평균1.8%)보다 높음. 대외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회복, 대내적으로는 부흥수요가 설비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
- 성장률 2.2% 중 1.8%는 개인소비 등 내수가 0.4%는 해외수요(수출-수입)가 각각 기여. 명목 GDP는 디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전년도대비 2.0%로, 내년에도 실질성장율이 명목성장율을 상회하는 이른바「명실역전」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
- 그 배경에는 부흥수요 증가에 따른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와 이에 따른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 자극 등을 들 수 있음. 에코카 보조금의 부활에 따른 자동차 구입 증가가 개인소비를 뒷받침하는 한편, 주택 에코포인트 부활 등으로 주택 투자도 확대될 전망

□ 중국의 국채 매입, 일·중 정상회담에서 합의

- 아즈미 재무상이 중국정부가 발행하는 위안화표시 국채매입을 검토할 방침. 매입 규모는 최고 100억 달러로 25일 일·중 정상회담에서 합의
- 노다 총리는 방중 일정에 맞춰 전략적 호혜관계 심화 등 일·중관계 개선책의 일환으로 일·중간 경제연대를 강화
- 중국정부는 외화준비운용자산 확대 전략으로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음. 이에 일본도 중국 국채를 구입함으로써 중국 금융시장에 관한 정보교환을 실시하는 외에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지원
- 일·중 정부는 통화와 금융에 관한 포괄협정을 체결. 중국의 국채 매입만이 아니고 국제협력은행이 중국과 공동출자하는 환경투자펀드도 창설할 전망

□ 사회보장개혁 기본안 공식결정

- 일본정부는 20일 사회보장과 조세의 일체개혁안에 관한 각료회의를 열어 정부·민주당의 일체개혁 기본안에 담은 사회보장분야 개혁안을 정식 결정
- 개혁안에는 물가하락 시 특례적용으로 원래보다도 2.5%높게 되어있는 연금을 내년 10월부터 3년간 인하하는 등의 급부억제책 외에, 의료비 부담을 일정수준으로 억제하는 고액요양비제도에도 연간 부담상한 신설 등을 명기

◆ 일본기업전략

□ 관민 공동펀드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지원

-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합병 및 해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상사 및 은행과 관민 공동 투자펀드를 창설할 방침.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와 민간기업이 중소기업의 M&A 및 판로개척을 위해 90억엔을 출자
- 엔고대책의 일환으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11년도에 2개 펀드를 설립. 90억엔 중 40억엔은 합병지원에, 50억엔은 해외사업지원에 각각 충당할 예정
- 투자대상은 일본의 자동차부품메이커가 해외부품메이커와 합작으로 설립하는 현지법인에 출자하거나 엔고로 아시아 기업들과의 가격경쟁이 격화되어 단독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국내 중소기업이 합병할 경우 증자도 포함
- 기업매수에도 「사업인수지원」으로서 주식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. 출자대상 기업은 은행산하 케피털펀드가 선정. 펀드에 출자하는 종합상사의 해외현지거점의 판로나 네트워크를 활용,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. 일본기업의 대아시아 서플라이체인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음

□ 도요타 내년 사상 최대 생산계획, 신흥국시장 공략

- 도요타는 2012년 세계생산대수를 과거 최고수준인 865만대로 2011년 전망치보다 약 20%이상 많은 수준임. 유럽채무위기 등으로 선진국의 자동차수요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으나 신흥국시장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
- 2012년은 아시아, 중남미 등 신흥국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.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, 하반기에는 브라질에서 각각 신규 공장을 가동할 예정. 100만엔 이하의 소형차를 생산, 신규 자동차구입 중간층을 겨냥한 수요개발에 주력
- 신흥국에서 도요타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약 8%로 예상. 생산능력 증강과 저가 자동차 투입으로 2012년에는 10%이상의 점유율 확보를 목표
- 엔고정착으로 수출채산성은 악화되고 있으나 국내판매는 자동차중량세의 일부 완화, 에코카보조금의 부활로 활기를 띠 전망

◆ 경제산업성 동향

□ 화력발전소 신·증설에 입찰의무화 검토

- 경산성은 전력회사가 화력발전소를 증설 또는 보수할 경우 모든 전력회사에 입찰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검토. 이는 전력회사를 포함, 최저비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, 보수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력회사가 스마트미터(차세대전력계)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입찰대상이 됨
- 전력회사가 입찰을 거치지 않고 건설·보수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에 산입하는 원가로 불인정하여 실질적으로 입찰을 의무화
- 전력회사가 전기요금을 계산할 때, 이윤으로 포함시키는 「사업보수」 산정방법도 개선할 방침
- 사업보수 산정 시 발전소나 송전선 등 발전에 필요한 자산총액에 일정 보수율을(현재 35%)곱하여 결정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개선, 자산총액으로 인정하는 설비의 범위나 보수율을 재검토

□ 아시아 거점화전략 본격 가동

- 경산성은 스웨덴 볼보, 미국 3M 등 외국기업 10개사가 일본에 연구개발 거점을 신설한다고 발표. 하이브리드(HV)사양의 대형 트럭, 일본시장 판매용 의료관련제품 등 고부가가치제품의 창출거점 등이 포함되어 있음. 외국기업 유치로 목적으로 한 일본정부의 아시아거점화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
- 경산성은 일본에 연구개발 및 아시아지역총괄 등 고부가가치거점을 신설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교부대상 10개사를 선정. 빠른 기업은 내년 봄에 거점을 설립할 예정
- 일본에 투자한 외국계기업의 일본거점은 감소경향에 있음. 2004년만 하더라도 진출한 기업보다 철수한 기업이 훨씬 많았음. 2009년에는 철수기업이 82개나 많았으며 중국에 아시아거점을 설치하는 경향을 보임.
- 아시아 각국에서 기업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, 일본정부도 보조금과 세제 우대 등을 골자로 한 외국기업 유치책을 마련. 다만 세제상 우대를 위해 필요한 아시아거점화 추진법안은 국회심의회가 이루어지 않아, 이번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은 세제상 우대는 받지 못할 전망

◆ 보고서 리뷰

『동아시아의 지역통합과 지진 이후, 일본경제 시나리오』

경제산업연구소, 12월23일

□ 공간 경제학적인 접근

- 공간 경제학에서 산업의 공간상 장소를 결정하는 요인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집적과 분산의 상대적인 관계로 접근
- 일본이 가진 집적력은 양질의 노동력, 효율적인 인프라스트럭처, 대규모 국내 시장, 부품 및 소재의 용이한 접근성,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력 등임
- 반면, 최근 엔고, 뒤진 FTA전략으로 인한 해외시장 접근성면에서 불리,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 전망 등이 분산력을 높이고 있음. 산업공동화 문제는 집적력을 높이고 분산력을 약화시키는 대책을 필요로 함.
- 집적이 자기증강적이기 때문에 일단 집적력이 분산력보다 커지게 되면 성장속도는 가속화하게 되는데, 이를 정의 피드백 또는 로크인 효과(Lock-in Effect)라고 부름. 산업집적의 형성과정에서는 이 효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산업집적이 성숙기를 맞게 되면, 서서히 분산력이 커지게 되어 어느 임계점을 넘게 되면 별개의 다른 입지패턴으로 이행할 수 있음

□ 산업공동화대책으로 선택과 집중

- 그러나 개별기업차원에서는 종래의 성공패턴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집적이 그대로 존치되어 버림. 이와같은 부의 로크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공동화대책에는 집중과 선택의 관점이 중요
 - 즉, 일본이 비교우위를 갖지 않은 산업이나 기능은 적극 아시아에 분산하는 동시에, 역으로 강점을 가진 것은 국내에서 집적을 강화시키는 것 뿐 만 아니라 해외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역협력을 강화해야 함
- 국내에서는 본래 일본이 가진 집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 즉 대도시에서는 지적자원이 집적,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, 지방에서는 기술이 응축된 중간재·소재 생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집적을 유지하는 것임

□ 동일본 대지진, 일본산업에 새로운 분산력 제시

- 동일본 대지진은 서플라이체인의 단절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조달처나 생산거점의 분할필요성을 높이는 등, 일본산업에 새로운 분산력을 제시했음
- 로크인 효과에 의하면 분산이 가속되게 되면 지진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더라도 원래의 집적은 복원되지 않음. 원래 국내에 남아있어야 할 산업, 활동이 유출되어 버리는 사태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함

* 출처 : <http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nts/11e079.html>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다국적기업의 해외의존도와 글로벌화』 일본무역회, 12월20일

*출처:http://www.jftc.or.jp/shoshaeye/pdf/201112/201112_32.pdf?2

- (2) 『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제기관 이용』 재무종합정책연구소, 12월 21일

*출처:http://www.mof.go.jp/pri/international_exchange/visiting_scholar_program/ws2011_e.pdf

- (3) 『새로운 에너지기본계획 책정을 위한 논점정리』 경제산업성, 12월21일

*출처:<http://www.meti.go.jp/press/2011/12/20111220012/20111220012.html>

- (4) 『일본재생의 기본전략』 국가전략실, 12월23일

*출처:<http://www.npu.go.jp/policy/pdf/20111222/20111222.pdf>

- (5) 『동아시아의 지역통합과 지진 이후, 일본경제 시나리오』 경제산업연구소, 12월23일

*출처:<http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nts/11e079.html>

- (6) 『2012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』 내각부, 12월23일

*출처:<http://www5.cao.go.jp/keizai1/mitoshi/2011/1222mitoshi.pdf>